

우리 당의 언론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언론활동의 원칙

박 희 순

우리 당의 언론사상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언론사상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언론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는 우리 당의 언론사상은 언론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언론사상에는 선군시대 출판보도물의 성격과 사명, 언론활동의 원칙과 방도로부터 기자, 언론인대오를 꾸리고 그들의 실력을 높이는데 이르기까지 출판보도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다 주어져있습니다.》

우리의 출판보도물은 철두철미 우리 당의 출판보도물이며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믿음직한 혁명대오로 자라난 기자, 언론인들의 활동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기자, 언론인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이 밝힌 언론활동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언론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언론활동의 원칙은 무엇보다먼저 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출판보도활동을 벌려나가는것이다.

당의 사상과 의도는 곧 수령의 사상과 의도이며 여기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감으로써 인민의 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시켜주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의 전략과 전술이며 여기에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의사가 반영되어있다.

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활동의 지침으로, 모든 사고와 행동의 출발점으로, 사업에서 옳고 그른것을 가르는 자로 된다.

우리의 모든 기자, 언론인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의 충직한 대변자이고 견결한 옹호자, 힘있는 선전자이며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정치활동가, 사상전선의 전초병들이다. 그런것만큼 기자, 언론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할뿐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그 요구대로 살며 일해나가야 한다.

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은 기자, 언론인들의 첫째가는 사상적량식이고 언론활동의 무기일뿐아니라 사업의 기초이고 출발점이며 기준이다.

오늘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우리 혁명은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며 모든 언론활동을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진행함으로써 언론활동의 전과정이 당의 사상으로 맥박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기자, 언론인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떠난 출판보도활동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 당은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이 벌어지고있는 환경에 맞게 모든 기자, 언론인들이 그 어느때보다 더 분발하여 언론활동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진행해나감으로써 우리의 신문, 통신, 방송, 잡지, 도서들에 오직 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만이 짝 차넘치게 할것을 기대하고있다.

그러므로 기자, 언론인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할뿐아니라 그 진수를 원리적으로, 사상리론적으로 체득하여야 하며 그에 철저히 기초하여 출판보도활동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기자, 언론인들에게 있어서 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은 출판보도활동을 벌려나가는데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고 유일한 기준이다.

기자, 언론인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막대기로 하여 모든것을 보고 대하며 글을 쓰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상이 뚜렷하고 당정책에 맞는 좋은 글을 쓸수 있다.

기자, 언론인들은 글 한건을 쓰고 편집하여도, 말 한마디를 하여도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여야 하며 정세를 분석하고 현실을 료해하여도 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로 하여 모든 문제를 분석판단하며 평가하여야 한다.

아무리 큰 글이라도 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지 않는 글은 쓸모가 없으며 비록 작은 글이라도 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으면 당의 립장을 대변한 좋은 글로 된다.

기자, 언론인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 사업의 기초로, 출발점으로 하여 언론활동을 벌려나가는 여기에 혁명의 붓대로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사상적기수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서 기자, 언론인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매우 중요하며 기자, 언론인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

모든 기자, 언론인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하여 환히 꿰들뿐아니라 그것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확고히 견지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당의 언론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언론활동의 원칙은 다음으로 출판보도활동을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의 현실에 발을 붙이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하는것이다.

주체적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보고 대하며 풀어나가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본성적요구이다.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고 자주적발전을 보장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주체적립장을 지켜야 할 요구는 더욱 절실하게 나선다.

출판보도활동에서 주체적립장을 견지한다고 할 때 그것은 출판보도활동을 진행해나감에 있어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오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며 출판보도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의 관점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분석평가하고 처리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기자, 언론인들은 주체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을 근본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출판보도활동에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을 근본초석으로 삼는 여기에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불패의 위력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의 원천이 있으며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가 있다.

그러므로 기자, 언론인들은 출판보도활동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출판보도사업전반을 주체적립장을 견지하는것으로 철저히 관통시켜야 한다.

기자, 언론인들은 넓은 정치적안목과 예리한 감각으로 현실을 정확히, 깊이있게 료해하며 우리 혁명의 요구, 현실이 요구하는 글을 써야 한다. 현실을 떠난 글은 글이 아니며 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은 책에서 배울수 없는 생동한 지식과 생활을 알게 하며 의지를 키워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되어 하나의 공고한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있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힘찬 진군운동이 벌어지고있다.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나래치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신념과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번지며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나래치는것이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세상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만큼 우월한 사회제도는 없으며 우리 나라 현실만큼 보람차고 위대한 현실은 없다.

현실속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것은 기자, 언론인들이다. 그런것만큼 기자, 언론인들은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전투장들에 들어가 현실을 깊이 료해하고 많은것을 배우며 문제성있는 좋은 글감을 찾아내야 한다.

투쟁과 랑만으로 가득찬 우리 나라의 현실을 미화분식하는것은 우리 조국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공지와 승리에 대한 신심이 부족한 표현이다.

기자, 언론인들은 현실을 미화분식하거나 과장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보도선전에서 진실성과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중시하며 우리 식을 주장한다.

기자, 언론인들이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출판보도활동을 벌려나갈 때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이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다.

그러므로 기자, 언론인들은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글을 쓰고 말을 하는것이 출판보도활동에서 나서는 근본요구의 하나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인민대중을 영웅적위훈으로 고무추동하는 기동적이고 생동한 기사, 편집물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우리 식은 곧 주체식이며 우리에게 이보다 좋은 식은 없다. 우리 식에는 인민대중중심의 정치가 구현되어있고 민족적자존심이 깃들어있다.

우리 인민이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빛내여올수 있는것은 남의 의사와 처방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주견과 자기 식의 혁명방식을 확고히 견지하여왔기때문이다.

모든 기자, 언론인들은 우리 식이 제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취재집필활동을 우리 식으로 맹렬히 벌려 철학적깊이가 있고 혁명성과 전투성, 호소성이 강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언론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언론활동의 원칙은 다음으로 출판보도활동에서 인민성의 원칙을 구현하는것이다.

인민성이란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의 정신을 말한다. 인민성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이며 기자, 언론인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고 사회발전의 동력이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고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힘의 소유자이다.

우리의 언론은 인민을 위한 언론이며 우리 언론의 진정한 가치는 인민대중에 의하여 평가된다. 그런것만큼 우리의 출판보도물은 군중의 친근한 벗이 되고 길동무가 되어야 하며 기자, 언론인들은 글 한건을 써도 군중의 심리와 사상감정에 맞는 글을 써야 한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글은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며 따라서 글을 위한 글, 전문가들이나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보고 리해할수 있는 글이 아니라 반드시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그들이 쉽게 리해할수 있는 글로 되어야 한다.

출판보도물에서 글의 특성을 살리며 짧고 알기 쉽게 쓰는 문제는 단순한 기교상의 실무적문제인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중에게 복무하는가 하는 관점과 립장에 관한 문제라고 볼수 있다.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에 까다롭고 어려운 표현을 쓰는 사람이 유식한 사람인것이 아니라 대중이 쉽게 리해할수 있는 표현들을 쓰는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다.

군중이 읽지 않고 군중이 보지 않으며 군중이 듣지 않는 출판보도물은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한다. 인민대중은 누구나 다 보고 알수 있게 이야기하자는 내용이 명백한 글, 짧고 아담하며 통속적이고 생활적인 글을 좋아한다.

신문과 방송, 통신들에서 내보내는 글들이 짧고 생신하고 통속적으로 되어야 대중의 환영을 받을수 있을뿐아니라 그들이 즐겨보고 들으며 재미있게 읽을수 있다. 그러므로 기자, 언론인들은 사상이 깊으면서도 간단명료한 글, 인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즐겨보며 듣는 글을 쓰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기자, 언론인들은 인민대중이 받아몰수 있도록 글을 대중화, 통속화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적인 문풍을 따라배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쓰신 글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깊은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있으면서도 내용이 명백하고 누구든지 보면 쉽게 리해할수 있다.

론리가 정연할뿐아니라 통속적이고 구수하면서도 글속에 깊은 뜻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모두가 보고 또 보게 되고 그 과정에 심오한 진리를 스스로 체득하게 하는것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다.

기자, 언론인들은 인민적인 문풍에 맞지 않게 글을 쓰는 현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기사와 편집물들을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시대정신에 맞게 통속적으로, 친절하게 만들어 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기자, 언론인들은 우리 당의 언론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언론활동원칙을 잘 알고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진군나팔수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야 할것이다.